

일본 학교급식에서의 지산지소의 현재

송동흠(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)

가. 일본 학교급식에서의 지산지소의 기본 개념과 접근 자세

- 지역의 자립과 지역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운동
 - 우리나라의 신토불이, 이탈리아 슬로우푸드, 미국 CSA 등과 같은 범주에서 접근
- 해당 지역의 흙, 빛, 공기, 물로 기른 생산자의 얼굴을 알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
- 먹을거리 교육, 지역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함께 함.
 - 계절의 식재료에 대한 이해 증진, 지역의 관심, 먹을거리 생산자와의 교류와 감사, 지역과 가정의 연계 강화, 남은 음식물 줄이기 등
- 지산지소 범위를 행정단위로 구체화하는 경향을 보임
 - 학교급식 관련 월간지 『학교급식』에서 조미료까지 지역 산으로 제조하는 방식의 지산지소 학교급식 실천사례가 소개됨.
 - 다만 실제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지산지소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, 일본의 현실을 고려해 전국 범위에서 지산지소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 함.
- 농촌과 도시가 각각의 지역 특성에 따른 접근과제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.
 - 농촌학교급식의 한 연구는 학교급식 운영규모 등에서 지산지소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함을 지적하면서, 경제이외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
 - 생산자는 지역의 먹을거리를 책임진다는 차원의 영양교사, 학교 등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로부터 보람을 얻고 농업의 제 가치를 발견하는데 기여한

다고 지적

- 그러면서도 지산지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고려를 위해 단점을 보완하고,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적극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
- 도시지역의 연구에서는 농산물 유통이 산지와 학교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논문이 다수 있음.
- 농사를 가까이서 접하고, 느끼는 것이 가능토록하자는 취지와 함께 도시 농업의 육성을 통한 학교급식의 지산지소가 추진되는 사례도 보여짐.

나. 일본 학교급식의 변천에서 지산지소의 계기

- 1980년 대,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자교식(직영방식)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운동이 펼쳐짐.
- 오늘날까지 일본 학교급식은 센터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.
- 이는 1960년대 학교급식의 전국적 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에서의 일본 정부의 선택에 따른 것임.
- 따라서 1960년대 중반 이후 학교급식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센터 방식의 학교급식이 도입되었음.
- 센터방식은 개별 학교단위 마다의 학교급식 시설의 부담으로 지역차원에서 식사를 마련 개별 학교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위탁급식임.
- 다만 일본의 센터 방식은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였음.
- 80년대 일본에서는 이 같은 센터 방식이 20여 년의 장기에 걸친 운영으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시설 교체가 제기되어 오늘에 이름.
- 이에 80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센터식의 문제제기와 함께 자교식으로의 전환 요구가 본격 제기되고, 이것이 이후 지산지소 운동의 중요 밑거름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음.
- 2000년 학교급식용 쌀의 가격인하 조치 폐지 이후,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쌀 공급사업 추진에서 출발
- 신식량법의 고시개정으로 도도부현이 학교급식용 쌀의 직접 구입 가능토록 한 조치를 말함.

- 이 법의 영향에서 학교급식용 쌀에 대한 정부미 보조가 2000년 4월에 폐지되게 됨.
- 이후 지역 차원의 쌀 공급의 확대 움직임과 그 영향으로 인한 쌀급식 확대도 학교급식지산지소 운동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.
- 일본 학교급식에서 쌀 급식은 2007년 이후 3회 달성에 이룸. 그리고 일본 학교급식에서 쌀 급식의 정식 도입은 1976년으로 기록하고 있음.

— 2003년 일본 학교급식에 있어서 지장산 자급률에 관한 연구가 전국적 범위에서 큰 반응을 일의 키고, 지산지소 학교급식의 전국적 확대에 나름의 기여를 함.

- 본 연구를 통해 일본 전역과 주요 자치단체별 지장산 자급률을 계산하여 현재의 실태를 전하였으며, 학교급식지산지소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도 함께 제기함.
- 다수의 일본 학교급식 관련 자료는 지산지소 학교급식의 본격적 출발시기를 2005년 전후로 보고 있음. 또는 2007년과 2008년으로 지적하는 보고서도 있음.

— 2005년 3월 농림수산성, 「식료·농업·농촌기본계획」

- 일본 지산지소 운동의 중요 근거가 되고 있는 계획 - 지산지소의 전국 전개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짐.
- 일본 관련 연구 자료의 설문 결과에서 2007년 3월 현황에 따르면, 응답 44개 현 중에서 41개 현에서 관련 시책을 마련 추진 중이며, 1개는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.

(참고로 일본 전체 도도부현은 47개임)

- 또한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42개 현에서의 지장산 급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41개임.

— 2005년 4월부터 영양교사제도 발족

- 살아있는 교재로써 학교급식 활용, • 지산지소와 학교급식 식교육의 연계 등 논의 활발
- 다만 일본의 학교급식 영양교사는 개별 학교 또는 조리장 단위가 아닌

시정촌 또는 도도부현 행정단위에 귀속함.

- 이 같은 이유에서 식교육에서의 영양교사의 역할을 논할 때 지역사회로의 기여가 자연스레 제기됨.
- 2005년 6월 공포의 식육기본법에서 ‘지역의 특색을 살린 학교급식 실시 등을 통한 식육 추진의 중요성’을 명기함.
-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과 실시가 진행되고 있음.
- 일본 한 연구자료의 2006년 설문조사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산물 활용 추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을 44개로 확인 해 주고 있음.
- 2006년 3월 내각부 식육추진회의 결정의 식육추진기본계획
- 얼굴있는 농산물, 생산자와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살아있는 교재로써 학교급식의 강조 속에 지역산 농산물 이용 강조
- 2004년 전국평균 21%를 2010년까지 30% 이상으로 하자는 목표 제시
- 2008년 1월 : 중앙교육심의회가 학교급식을 기존의 ‘영양개선’에서 ‘식육’으로 전환한다고 답신
- 2008년 6월 학교급식법 개정 (2009년 4월 시행) : 「식료의 생산, 유통 및 소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」, 즉 학교급식 식교육을 학교급식 목표의 하나로 분명히 제시
- 현재의 일본 중앙 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지산지소의 지원
- 일본 정부는 과거 쌀, 쇠고기, 밀가루, 우유, 분유 등을 국가 지정물자로 지정 학교급식에 공급한 사례가 있음.
- 그렇지만 WTO체제 도입 등과 관련해 국가 단위의 지정물자 지원은 거의 폐지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분유가 유일함.
- 2009년 일본 언론에서 일본 농림수산업성 관계자는 지산지소형 학교급식을 위한 농림수산업부 역할에 관한 물음에, ‘지산지소형급식메뉴 콘테스트’와

- 당시로 2년제로 만지고 있는 ‘지산지소형 일꾼’ 선정이 있다고 설명함.
- 덧붙여 2009년과 2010년 2년 간 한정 사업으로 ‘학교급식지장산농산물이용확대사업’을 들고 있음.
 - 2009년과 2010년 2년 간 실시의 동 사업은 2010년까지 학교급식 지역산 자급률을 30%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지원코자 마련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음.
 - 학교급식 관계자와 생산자 등이 협력해 지역농산물 이용확대 식단의 도입 등 실질적인 지역 식재의 활성화에 기여할 때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시적 소모성 예산에 해당 함.
 - 동 사업의 수혜자는 대개가 도도부현 학교급식회였던 것으로 확인됨.

다.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원 책

-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5년 3월의 농림수산성, 「식료·농업·농촌기본계획」과 동년 6월의 식육기본법 등의 시행으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산지소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.
- 지방자치단체 단위 학교급식 지산지소의 지원은 ①보급·개발, ②실태 및 의향의 파악, ③추진방책의 검토, ④식단 및 가공품의 개발 지원, ⑤학교급식 관계자와 생산자 등의 협력, ⑥공급체제의 구축지원, ⑦식재료 구입경비의 지원 등 다양한 범위에 걸치며, 각각의 영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.

① 보급·개발

- 도도부현 단위에서 생산자 지도나 계절 식재정보에 관한 자료(팜플렛 등)
- 지역 농어업 또는 농축수산물에 관한 연수회·강습회 개최
- 실천활동 사례의 작성·배포
- 산지농산물 활용 조리강습회, 지역급식의 날 운영, 심포지엄 개최, 홈페이지 운영 등

②실태 및 의향의 파악

- 문부과학성 차원의 「학교급식에 있어서 지장산물 활용상황조사」가 진

행되고 있고, 이와 별개로 도도부현에서 독자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.

- 지역 식자재 이용의 문제점 해결 과제 등을 함께 토론하는 자료가 됨.
- 조리장, 학교 그리고 생산자 단위에서 지역산 농산물 이용의 의향조사 등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임.

③추진방책의 검토

- 현 또는 시정촌 단위 등에서 지산지소 학교급식 실천을 위한 추진회 개최를 지원 - 추진회 개최 경비 지원 등
-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 지원 등

④식단 및 가공품의 개발 지원

- 영양교사, 영양직원, 급식 조리원 대상의 지역 식자재 이용의 조리대회의 개최 또는 관련 경비의 지원
- 도도부현 학교급식회나 식품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농산물 이용 식단이나 가공·냉동식품의 개발에 관한 경비 지원
- 참고로 일본은 시정촌을 학교급식 운영 주체로하고 있고, 과거 국가지정 물자 공급 관여에서 도도부현 단위 학교급식회가 형성 운영되어온 역사와 관련 지역범위에서 학교급식 물자 개발 움직임이 활발함.

⑤학교급식 관계자와 생산자 등의 협력

- 학교급식 제 관계자의 의견 교류회, 산지 또는 공장 견학 등의 지원

⑥공급체제의 구축지원

-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는 생산자 발굴, 생산자 조직 육성 등
- 산지에서 학교급식 조리장까지 유통시스템이나 정보발신 등 시스템 정비
- 모델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산 식재료를 활용하는 경우, 산지엣 학교급식 조리장까지 유통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.

⑦식재료 구입경비의 지원

- 과거 쌀급식의 도입 때 빵급식과의 차액지원, 정부미와 지역산쌀의 차액 지원 등 급식용 식재료의 경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음.
 - 현재는 지역산 쌀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짐.
 - 지역특산품 등 지역 식재료 활용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음.
 - 지역 식재료 이용을 전제로 연간 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지만, 「지역 급식의 날」이나 특정 기간에 지역산을 이용한 경우에 현과 현외의 가격차를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임.
- 다만 위 사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업으로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고, 지원규모 등도 차이가 있음.

라. 일본 학교급식에서 지산지소 관여 주체와 운영의 현재

- 일본 학교급식 관여 주체는 학교, 보호자, 생산자, JA(농협), 교육위원회, 현 학교급식회, 급식센터 등이 있음.
 - 일본 지산지소 학교급식 모범사례들에는 앞의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학교급식 관여 주체의 협력이 두드러진 곳임.
 - 그렇지만 일본 학교급식 연구내용에는 관여 주체가 일체화되어 지역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음.
 - 동 자료는 생산영역과 학교급식 영역의 충분한 제휴를 함께 주문하고 있는데, 정보부족 등으로 학교급식에서의 공급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.
 - 2006년 일본에서 실시한 지산지소 학교급식 설문은 지역 식재료 이용의 어려움의 연대할 조직이 없다(단독조리교 22.5%, 급식센터 14.8% - 급식센터에서 최우선 순위는 필요량 확보 곤란이 22.2%로 최고)를 우선순위로 꼽고 있음.
- 위 조직에서 학교급식 물자의 직접적 담당은 도도부현 학교급식회가 큰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까지 다수임.
- 현 학교급식회는 민법 34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이며, 학교급식 발전 특히 학교급식용 물자를 적정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4

년~59년에 걸쳐, 전 도도부현에 설치 됨.

- 설립당시 학교급식회는 학교급식용 탈지분유 수입기관으로 기능했으며, 이후 쌀, 밀가루, 탈지분유, 수입쇠고기, 우유 등 문부과학성 지정물자의 관리 단위 역할을 함. (학교급식용 물자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공급하기 위한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물자)
- 가공식품, 냉동식품 등 문부과학성 승인을 얻은 학교급식용 물자 취급도 함께 해 옴.
- 그렇지만 80년 이후 승인물자 폐지, 그리고 2000년대 초 지정물자 폐지 등으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 도도부현 단위에서 독자의 생존을 모색 오늘에 이름.
- 승인물자는 1983년에서 1999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, 지정물자는 2000년 쌀, 2002년 밀가루와 밀 제품, 쌀가공품, 2003년에는 수입쇠고기가 폐지되었고,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탈지분유는 2006년 3월에 타 기관으로 이관 됨.
- 한편 이 같은 흐름에서 일본국가단위 학교급식회는 급격한 변천을 거듭 해 현재는 학교급식과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바뀜.
- 이상의 흐름에서 현 학교급식회의 현재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단위로써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, 실제 존재감을 거의 상실한 곳도 있음.
-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지역범위에서 개별 시정촌 단위의 학교급식 식재료 운영시스템을 보완, 도도부현 단위에서 총괄 접근하는 곳이 다수임.
- 도도부현 학교급식회 단위에서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학교급식용 물자를 생산 공급하는 움직임도 있음.
- 이 같은 흐름은 현 학교급식회의 변천 그리고 안전·안심 식자재 공급 이해 증진과 요청으로 강화되는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.
- 관련 연구자료에서 현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·냉동식품의 취급 시기가 2000년대 전반 이후에 가장 많았다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.
- 관련 연구자료는 현 학교급식회의 역할 변화와 강화에 영향을 미친 의사 결정에는 현학교급식회 자체적 판단이 주효 했지만, 현 농정국의 움직임, 농협 또는 시정촌 교육위원회, 학교급식 영양직원 등의 역할도 컸던 것으

로 확인 됨.

- 특히 현 농정부국의 움직임은 지역농업의 진흥과 관련에서 가공식품 등의 취급 요청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.
 - 이 같은 역할의 대표적 사례가 사이타마현 학교급식회인데, 학교급식회 단위에서 물자를 개발하고, 또 시정촌 단위가 공동으로 사이타마현에 식재료 공급을 의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.
 - 한편 일본은 시정촌 공동구매를 통해 생산자와 가공업자와 직접적인 거래를 행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음.
- 학교급식 물자 공급에서 도도부현 학교급식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지만, 다수 지역이 지역생산자와 관계에서 코디네이터, 조정자 역할을 하는 단위의 뒷받침이 중요 역할을 하고 있음.
-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많은 지역에서 JA 등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 - 시정촌이 학교급식 운영 주체인 관계로 시정촌 교육위원회 단위에서 JA와 출하계약을 맺고, 그 계약에 근거해 JA가 지역생산자로부터 식재를 조달해 학교급식센터 등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형태임.
 - JA는 학교급식센터 등의 요구를 수렴 지역 생산자를 교육하고, 식자재 재배를 지도하는 일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함.

마. 일본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의 일반 흐름

- 일본 학교급식에서 식재료의 구입은 시 또는 조리장 단위가 중심이 되나 품목별로 차이를 가짐.
- 인구 5만인 이상의 도시 및 동경에서의 설문을 진행한 관련 연구자료는 406개 시에서 응답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말해 줌.
 - 쌀·우유·빵 등에 대해서는 시 단위의 구입이 많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음.(쌀의 경우 시 46.1%, 조리장 43.6% 그 외 지구단위 5.2%, 기타 5.4%)
 - 채소, 과일, 육류, 조미료, 계란, 두류, 생선, 가공품 등은 조리장 단위의 구입이 시단위 구입보다 높았음. (채소의 경우 시 단위는 34.7%, 조리장 단위는 57.6% 였음. 그 외는 지구단위 6.7%, 기타 2.5%)

- 일본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입처는 품목별로 다양한 흐름을 보임.
 - 위의 같은 연구자료를 참고하면, 현급식회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쌀, 맥류, 우유, 빵 등임 (각각 80.5%, 53.2%, 67.0%, 76.4%)
 -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은 유통업자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, 품목별 유통업자의 몫은 채소 87.7%, 과일 88.9%, 두류 81.3%, 계란 83.3%, 육류 88.2%, 생선 86.5%, 가공품 85.7%, 조미료 87.9%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.
- 품목별 지역산 이용의 실태는 쌀은 통산 지역 것을 이용하지만 채소 등은 지역성, 계절성 등의 복합적 요인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옴.

바. 주요 우수 지역별 사례와 시사점

- 일본 지산지소형 학교급식의 최고 모범사례로 알려진 곳은 에이메현 이마바리 시임.
 - 에이메현 이마바리의 성공은 학교급식을 지역의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해 간 결과로 보임.
 - 이마바리시는 80년대 센터방식의 학교급식을 자교식으로 전환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지역 중 한 곳의 이를 계기로 학교급식의 지산지소를 시작하게 됨.
 - 학교급식 이전에 지역만들기의 사전적 접근 속에서 지역 유기농 운동을 앞서 실천하였으며, 이 같은 지역여건을 기초로 학교급식의 지산지소를 강화해 옴.
 - 이 같은 이마바리 시의 가장 특징적인 행보는 1988년의 「식량의 안정성과 안정공급체제를 확립하는 도시선언」의 채택이라 할 수 있음.
 - 도시선언의 내용에는 시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농축산물 생산기술을 재검토하고, 필요이상의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해 유기지의 토양 만들기를 기본으로 한 생산기술의 보급을 도모하고, 보다 안전한 식량의 안정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널리 소비자에게도 이해를 구해,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식생활의 실천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음.
 - 1988년의 도시선언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변화에 따라 2005년 지산지

소 운동, 먹을거리 교육의 추진이 유기농업 실천과 더불어 3가지 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됨.

- 이후 이마바리 시는 산지만들기 교부금을 활용 환경보전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기농업실천 운동을 전개에 힘을 기울임.
- 또한 학교급식 충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나가게 되는데, 지역에서 학교급식 계약재배의 충실을 위해 쌀에서부터 맥류·채소 등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, 관련 다양한 시민활동 지원책을 펴.
- 학교급식의 지역농업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직매소 등과 연계한 학교급식 물류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.
- 직매소의 활성화는 방학이나 휴일 등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이 없는 날 그리고 잉여농산물 처리 등에 널리 활용되는 공간임.
- 학교급식 외 지역식당 등에서 지산지소 실천 운동을 끌어냄.

— 일본 지역범위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동생산과 공동구매 시스템의 최적화로는 사이타마현 학교급식 사례가 소개되고 있음.

- 일본 사이타마 현은 관동평야에 위치한 내륙지역으로 2006년 10월 현재 약 708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, 도도부현 인구규모 면에서 일본 내 6위를 기록하고 있음.
 - 2006년 5월 1일 현재 현 내 822개 소학교 전체, 중학교 425개 중 424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, 학교급식 운영규모는 초등학교 약 40.2만 명, 중학교 약 18.7만 명으로 전체 61만 명 임.
 - 사이타마현 학교급식회는 지역 학교급식 규모에 맞춰, 냉동창고, 저온창고, 상온창고 등의 물자보관 창고와 배송차 등 하드웨어적 기능을 정비 물류 등을 총괄하고 있음.
 - 또한 안전성 검사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범위에서의 학교급식에 관여하고 있음.
 - 더불어 먹을거리 교육의 일본 사회의 관심 증대와 함께 지역과 학교 단위에서 다양한 범위의 연구와 교육과 행사 개최 등으로 이에 관여하고 있음.
 - 사이타마현의 지산지소형 학교급식은 사이타마현 학교급식회가 구심 역할을 하면서, 현 내 시·정·촌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임.
- 사이타마현 학교급식 운영의 기본 구도는 사이타마현 학교급식회에서 시

- 정·촌 교육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학교급식 물자를 준비하고, 이를 학교 또는 공동조리장으로 공급하는 것임.
 - 이에 앞서 학교 또는 공동조리장은 시·정·촌 교육위원회에서 물자를 신청함.
 - 사이타마현 학교급식회의 일본 지산지소형 학교급식 모범사례로의 발전은 국가 지정물자 또는 승인물자의 폐지 후 지역 식재료 공급을 위한 다음 흐름과 같이 나름의 계획을 수립해 온 결과임.
 - 1999년 학교급식용 쌀에 대한 정부보조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지역 학교급식 제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산 쌀 공급체계를 마련함.
 - 이어 지역 제분·제면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에 지역산 밀과 가공제품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함.
 - 이 같은 노력으로 1999년 4월 이후 지역산 밀 이용 우동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, 2000년 4월 사이타마 밀 100% 이용 빵, 9월에는 수제비 공급이 가능하게 됨.
 - 특히 빵 공급은 지역산 밀의 글루텐 부족 해결을 위한 수차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얻은 성과임.
 - 지속적인 지역산 식재료 개발에 힘써 사이타마 산 콩, 옥수수 가공제품도 개발 보급하였으며, 육류 등도 지역산으로 공급하게 됨.
 - 사이타마 현 학교급식회의 이 같은 공급체계에는 1차 농산물 생산과 공급 부분에서, 일본농협 사이타현 본부가 조정자(코디네이터) 역할을 하고, 지역의 제분공장, 유가공업자, 빵공장, 면공장, 정미공장, 밥공장 등이 다양한 형태로 함께하고 있다.
- 오사카부의 이즈미시의 학교급식 실천 사례는 도시농업에 기초한 도시지역 학교급식의 한 유형으로 평가됨.
- 오사카부 이즈미시는 2001년 이래 생산자·생산자단체, 행정, 교육위원회·학교관계자 등의 관계 주체가 연대하여 학교급식용 쌀 전량을 지역산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.
 - 이즈미시의 학교급식의 쌀 공급 담당은 이즈미시농업진흥회가 맡고 있는데, 조직구성은 시농림과, 농업위원회, 농업협동조합, 후계농업인대표, 농업청년그룹, 농가여성그룹, 과수진흥회 등이 함께하고 있음.
 - 쌀 공급은 시농업진흥회가 지역산쌀을 지역농가로부터 매입하고, 교육위원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, 지역 내 쌀관련 업자, 쌀소매조합

등이 두루 관계하고 있음.

- 그렇지만 해당 사업은 시농업진흥회에서 총괄하며 계약과 함께 관련 자금을 집행하고 있음.
- 쌀은 지역 다섯농가가 전체의 90%를 공급하며, 지역농협이 일부를 사들이는 것이 있음.
- 본 사업에서의 시의 지원은 사무국을 시농림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매년 운영자금으로 6,000만 원을 대부하고 있음.
- 그렇지만 대부금 6,000만 원은 쌀 판매대금으로 매년 상환함.
- 쌀 외에 굴, 굴젤리, 된장, 채소류 등의 지역산 공급을 시행하고 있음.
- 이중 굴은 과거 일괄구입으로 공급했으나, 가격설정 방법을 둘러싼 생산자와의 갈등으로 현재는 학교별 모두 지역산을 약 20인의 인증농가에서부터 단독구입하고 있음.
- 굴젤리는 지역굴을 이용한 가공품으로 지역업자에게 위탁가공해서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.
- 된장은 시내의 농가여성그룹에서 생산한 것인데, 이용학교가 10개 정도로 제한 적임.
- 채소류는 지역농가로부터 구입하는 학교 수가 5개교로 많지는 않음. 다만 품목과 양, 가격 등을 학교와 농가가 자체로 협의 결정하고 있음.
- 채소류 이용 확대는 지역 내 소매업자의 역할, 식단에 맞는 품목이나 양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짐.
- 그렇지만 이즈미시의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은 쌀은 생산자와 교육위원회 사이의 적정 가격에 대한 다툼, 학교급식 외 수요자 대상의 홍보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.
- 채소류는 이용 학교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극복과제이며, 동시에 출하에 협력하는 농가의 발굴·확보이 요구됨.
- 한편 이즈미시는 도시지역인 관계로 지역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이용되고 있다는 인지도가 지역사회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- 따라서 지역사회에 이를 널리 홍보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과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.